

금융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해외 및 국내 금융주 부진 지속
- 취약한 연결고리 우려 부각: PF & 2금융권
- 조달비용 상승과 건전성 부담

취약한 고리를 둘러싼 우려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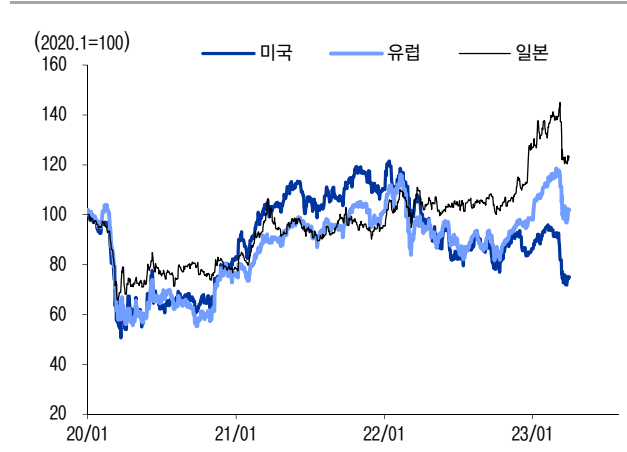
국내 금융권의 취약한 고리는 부동산 PF와 2금융권 건전성

- ▶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도 국내외 금융주 부진 지속. 증시 회복에도 미국 중소형 은행주와 찰스슈왈 주가는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대형 은행과 보험주 등 전반적인 금융주의 성과가 저조.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반영된 경기침체 우려 고조와 함께 취약한 연결고리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 국내 역시 지수대비 금융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금융업종별로 1~3개월 수익률은 KOSPI를 평균 10% 이상 하회. 특히 지난해 성과가 좋았던 은행과 보험업종이 더욱 부진한 모습
- ▶ 국내의 취약한 연결고리로는 부동산 PF와 2금융권 건전성 이슈를 꼽을 수 있음. 최근 언론보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2년말 전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1.19%로 9월말 대비 0.33%p, 21년말 대비 0.82%p 상승.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10%를 상회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연체율 또한 2%대를 기록. 참고로 지난해말 국내 금융권 PF대출잔액은 129조원이며, 30조원 내외로 추산되는 증권사의 PF보증(유동회증권)규모를 합산하면 전금융권의 PF익스포저는 160조 수준으로 추정. 연체액 규모는 캐피탈사가 약 6,000억 원으로 가장 큼
- ▶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경우 PF 대출 이외에도 일반 가계 및 기업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동반 악화되고 있음.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모두 22년 하반기 들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 경기침체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자산(대출)증가세 둔화와 함께 23년 중에는 대손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조달비용 상승과 건전성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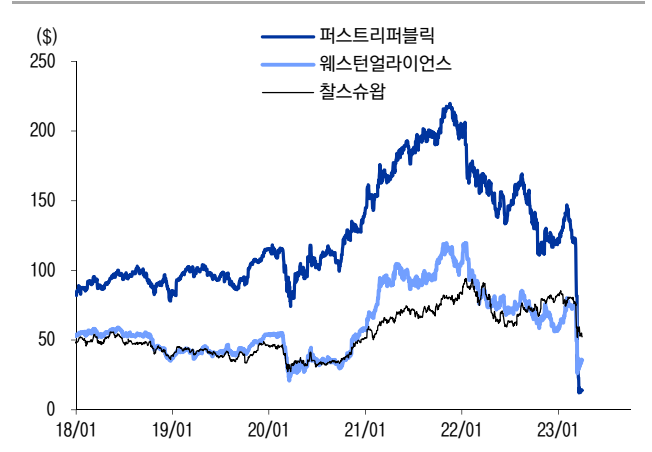
- ▶ 경기침체 심화 우려와 유동성 리스크는 해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및 자산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에 취약한 고리로 분류되는 부동산 PF와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금융권 자산건전성 약화는 시차를 두고 은행권으로도 전이될 수 밖에 없음
- ▶ IFRS17 도입으로 표면이익과 자본규모가 확대된 보험사의 경우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할 경우 재무지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고, 경기부진 심화 시 신계약 CSM 확보 및 유지율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증권사의 경우 최근 증시여건 개선에도 PF 관련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업종 주가가 시장수익률을 하회

그림1 해외 은행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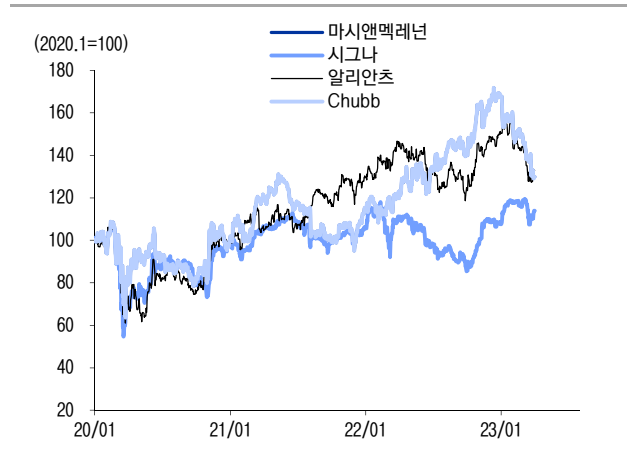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중소형 은행과 찰스슈왑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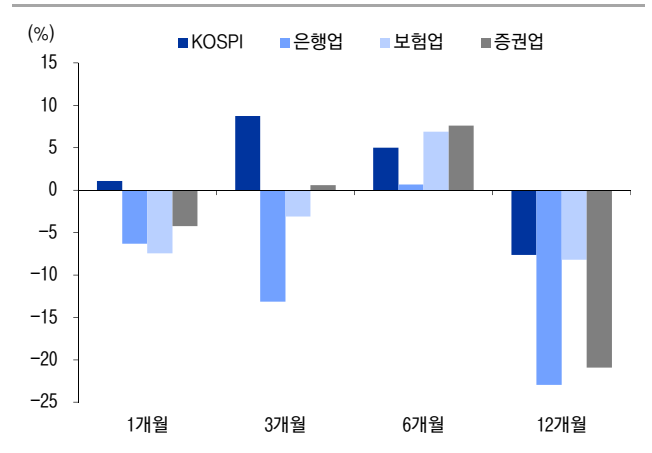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해외 보험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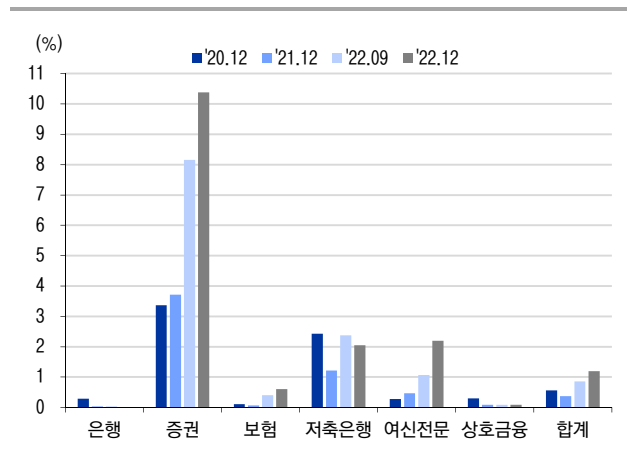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금융주 기간별 주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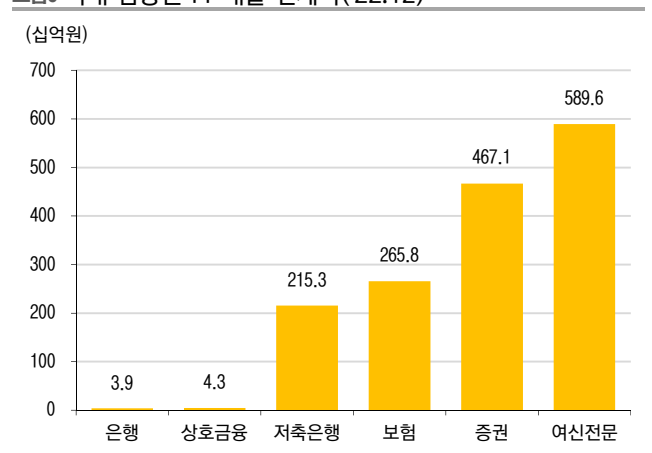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국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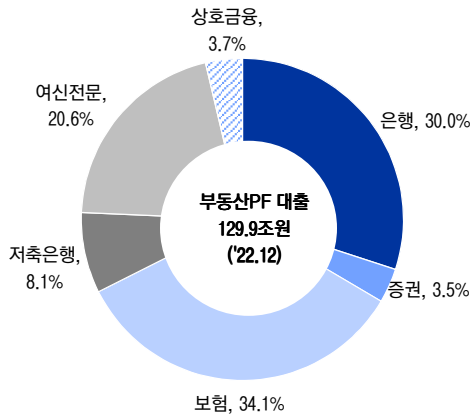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국내 금융권 PF 대출 연체액('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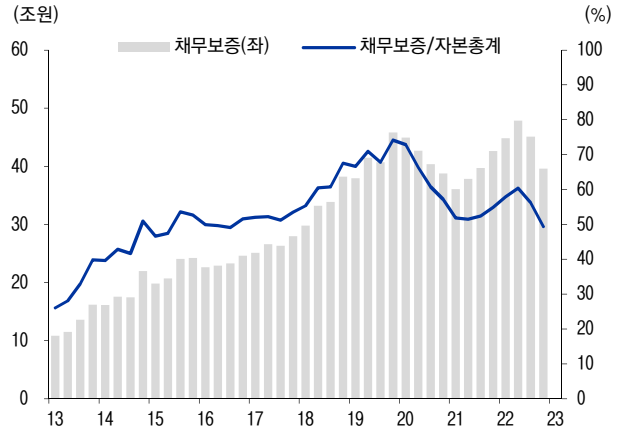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 금융권 PF 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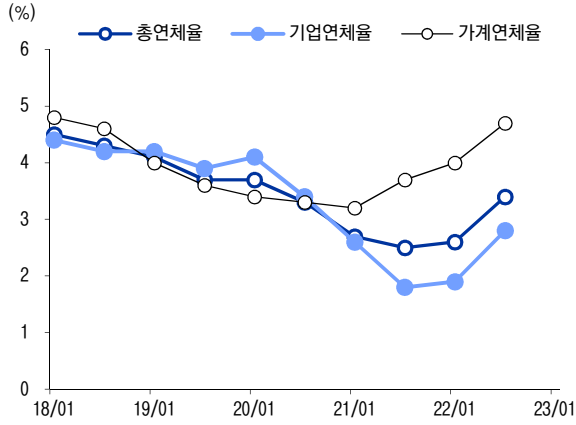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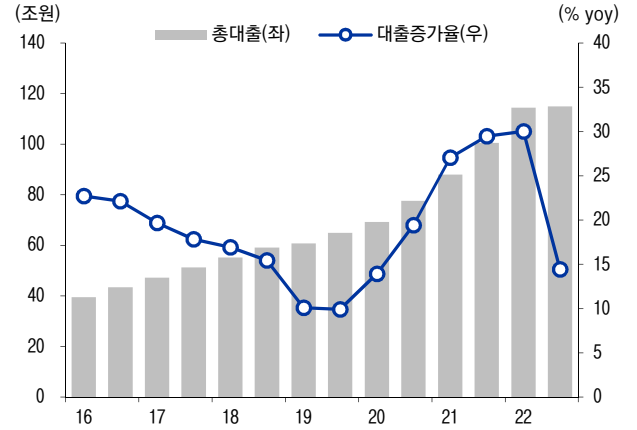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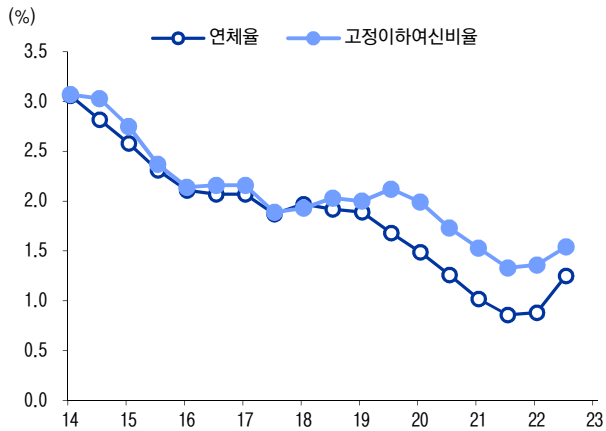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저축은행 총대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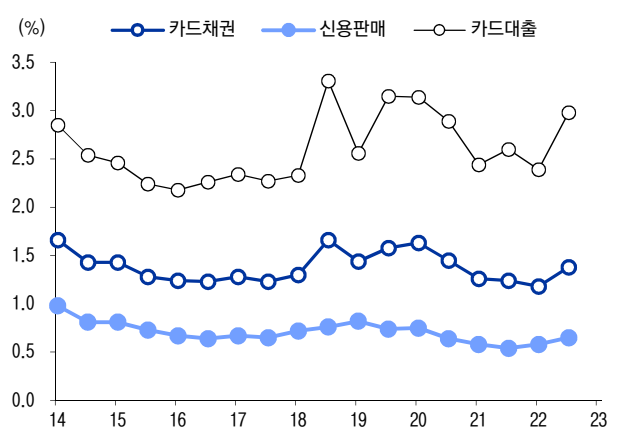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여신전문금융회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신용카드사 연체율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3% 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4. 1 ~ 2023.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